A photograph of a community music session in a library. In the foreground, a man in a light blue shirt plays an acoustic guitar. Next to him, a woman in a yellow shirt plays a hand drum. A group of children and adults are sitting on the floor, listening. In the background, there are bookshelves and a balcony with a railing. A woman is taking a photo with her phone. The scene is lit with soft indoor lighting.

공동체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주민조직화 사업

와글와글  
우리동네 도서관

# 와글와글 우리동네 도서관

공동체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주민조직화 사업



## 사업명

## 사업실적

- 임대아파트 단지 내 SH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위탁운영
2012. 9. 고덕리엔파크3단지 SH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계획
2013. 6. 서초네이처힐3단지 SH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위탁운영
2013. 10. 송파파크데일 SH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
2014. 1. 신내우디안2단지 SH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위탁운영
2014. 5. 신내데시앙 SH작은도서관 운영 컨설팅
2015. 5. 신내우디안1단지 SH작은도서관 위탁운영
2015. 7. 삼선SK뷰 SH작은도서관 리모델링
2015. 7. 수색대림 SH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위탁운영

## HISTORY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운영방식과 예산이 정립되지 않은 채 조성만 하여, 960개소 작은도서관의 세 곳 중 한 곳은 폐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아이부키(주)는 협력기획을 통해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3단계 전략을 수립, 현재 시행 중이다. 임대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교육 격차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참여

기획: 아이부키(주), 서울주택도시공사  
발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시공, 운영: 아이부키(주)

— 임대아파트의 버려진 공간을

아이와 엄마, 전 세대를 위한 **문화공간**으로!

—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함께

주민자치를 배우는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 임대아파트 단지의 수많은 유휴공간의 가능성,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꽃피우다.

# 어째서 이렇게 좋은 공간이 놀까?

공동체형 작은도서관 사업은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알짜공간이 왜 버려졌을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도 최소기준에 따라 빈 공간만 마련되고, 운영인력과 예산도 없어 공간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 건물면적 33㎡ 이상
- 열람석 6석 이상
- 도서자료 1,000권 이상

## 공동체형 작은도서관 단계별 사업추진

공동체에 최적화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인테리어를 시행하는 공간조성 단계를 거쳐, 다양한 예술교육과 주민조직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운영단계 이후에는,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지역과 협력하는 네트워크 거점공간으로 성장합니다.



### 공간조성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동체형 테마공간



### 안정적 운영

6개월 위탁운영  
주민조직화+ 콘텐츠 운영



### 네트워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콘텐츠 교류 및 협력사업

# 작은도서관이 살아있다!

어제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공간이 오늘은 어머니들이 담소를 나누는 동네사랑방으로,  
낮에는 조용한 독서공간이던 다락방 아지트가 저녁에는 연극이 열리는 공연장으로. 작은도서관의 변신을 기대해주세요!



[고덕리엔파크3단지 공간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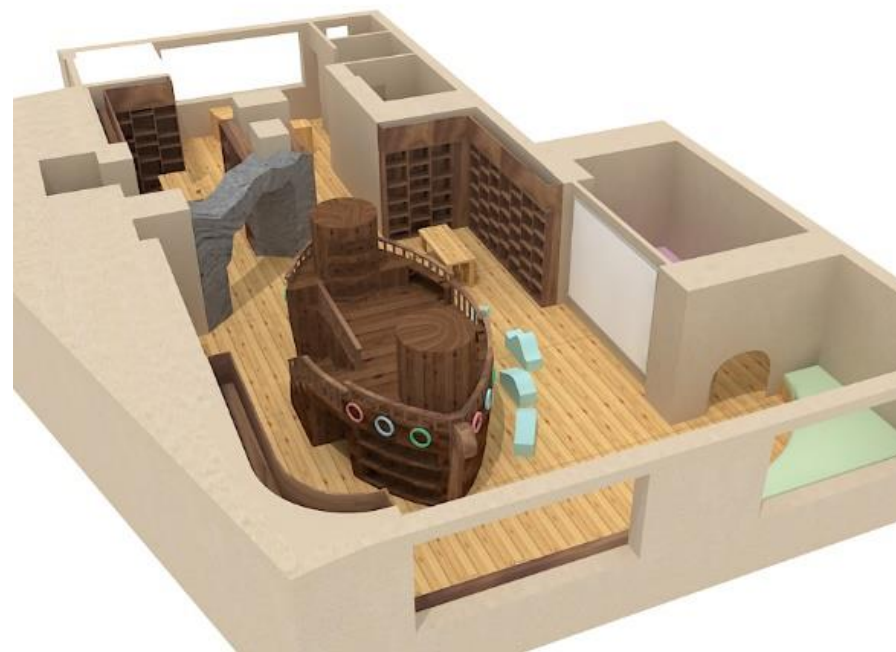


## 아이들이 와글와글 떠들고 뛰어노는 도서관

아이들에게는 비좁은 아지트, 기어 들어가는 다락방, 지칠 때까지 뒹굴고 뛰어노는 재미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언제라도 달려가고 싶은 공간,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 단절되지 않는 소통형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신내우디안1단지 공간기획]



[서초네이처힐3단지 공간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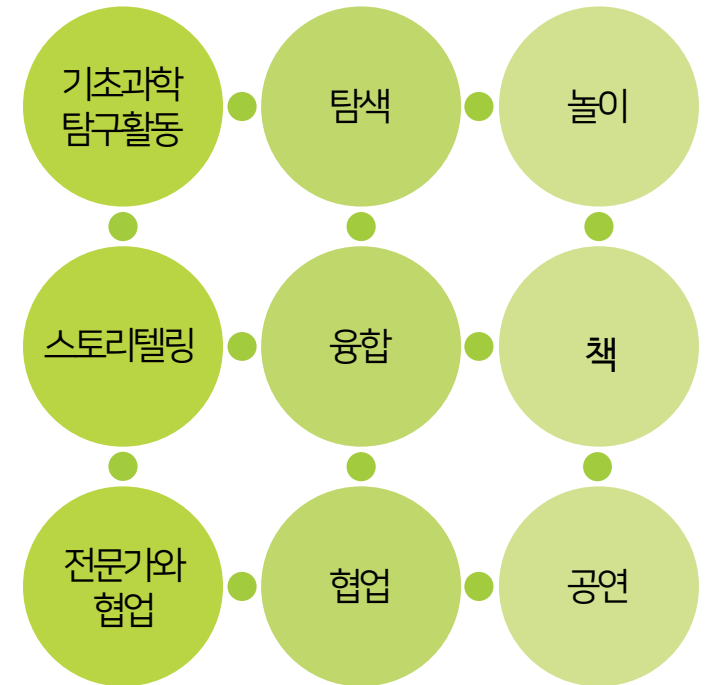
# 내가 만든 책을 우리 도서관 책장에!

유아부터 일반 주민까지 누구나 자신이 배운 것, 관심사를 책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주민의 역사를 축적하는 아카이빙 툴이자, 공교육이나 사교육과는 차별화된 공동체 대안교육 플랫폼입니다.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그램]



[과학·예술 융합교육 개념도]



## 취미와 교육, 육아와 예술활동을 이웃과 함께

일반 문화시설이 주민 개개인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작은도서관은 이웃과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기 옷을 짓는 모임, 이웃아동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임, 사진 취미모임 등 다양한 동아리를 길러냈습니다.

- ✓ 인형극단 동심
- ✓ EM만들기
- ✓ 그림책 동그라미
- ✓ 함께 클래?!
- ✓ 재봉틀 미사모
- ✓ 마중물 공동육아
- ✓ 해피워드맘
- ✓ 꿈꾸는 사진방
- ✓ 힐링 보드게임
- ✓ 비즈 동아리

[서초네이처힐3단지 작은도서관 동아리 모임]

## 아파트 주민공동체의 요람,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친목 위주의 폐쇄적인 기존 주민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주민에게 열린 문화예술과 주민자치의 장입니다. 우리는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다양한 욕구와 활동을 결합시키고,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스스로 찾게 하여 자치활동을 실현했습니다.

- ✓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표성**을 얻는 주민조직 육성
- ✓ 열린 운영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절차**
- ✓ 주민조직으로서의 **가치교육**



# 공간과 사람을 잇는 서울 창의마을 네트워크

임대아파트 단지에 있는 수많은 유휴공간에서 각기 다른 콘텐츠를 익히고, 판매와 교류활동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권역별 문화특성을 반영한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생산-소비-유통의 지속 가능한 아파트 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림책  
(400-830)

<생각하는 나무> 신내우디안2단지



<책읽는 쥐구멍> 신내우디안2단지



<아이들의 탐험선> 서초네이처힐3단지







<내가 만든 그림책> 작은도서관 전시



도서관  
친구들

앞니가  
입 속에서  
**툑**  
글그림 정혜성  
서초 네이처힐3단지 작은도서관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그램> '앞니가 입 속에서 툑' 작가 정혜성



<유아 촉감놀이>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신내우디안2단지> 도서관 프로그램



<신내우디안2단지> 개관식



<신내우디안1단지> 개관식